



주요국제문제분석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2013. 1. 7

No. 2012-47

오바마·시진핑 정부하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교수 최우선

1. 문제 제기

- 국제체제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아있는 미국과 계속해서 급부상하는 중국의 관계는 동아시아 정세뿐 아니라 세계 정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중국의 급속한 경제력과 군사력 증대 그리고 보다 공세적인 외교행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유발함으로써 양국관계는 협력의 기조 속에서도 점차 경쟁적 측면이 강화되어 왔음.
 - 세력균형의 변화와 미·중 경쟁의 증대는 역내국가 간 세력경쟁 및 영토분쟁 등과 결합되어 서서히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국제정세의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롭게 들어선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2기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지를 전망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함.
 -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함.
 - 반면, 시진핑 정부의 대미정책은 보다 가변적인 변수로

<목 차>

1. 문제 제기
2.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 양상
3. 미·중관계 전망
4. 한국의 전략적 위치
5.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

미국과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경쟁하면서도
지역안정의 유지와
다양한 국제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해서는 국력상승에 따른 자신감과 민족주의로 인해 신지도부가 미국의 견제에 대해해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측과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신중한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새로운 지도부하에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해 한국의 중·장기적인 외교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미·중관계의 성격과 최근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후, 전략적 환경과 국내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과 상호관계를 전망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변화하는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분석한 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전략 방향을 제안할 것임.

2.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 양상

- 미국과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경쟁하면서도 지역안정의 유지와 다양한 국제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 양국이 발전시켜온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협력유지에 기여해왔지만, 양자관계를 규정해 온 더욱 중요한 변수는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임.
 - 미국은 냉전 이후 유일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의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시에 중국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음. 미국은 이처럼 균형자로서 지역안정의 공공재를 제공하고 지역 군비경쟁을 자제 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현상을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의 동기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을 국제사회로 통합해 현상유지 국가로 유도하려 노력해 왔음. 동시에 미국은 기술적 우위에 기초한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동아시아 동맹체제의 유지를 통해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로

-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음.
- 미국의 힘의 우위하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본격적인 군사력 경쟁을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대전략을 추구해 왔음.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전략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왔음. 한편 이러한 기본적으로 신중한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은 경제발전과 군사력 현대화를 통한 미국에 대한 장기적 견제와 강대국화를 추구해 왔음.
 - 미·중관계의 협력적 기조가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급부상,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보다 공세적인 외교행태는 미국의 견제를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최근 미·중 관계에 있어 경쟁적 측면을 증대시켜 왔음.
 - 중국이 1990년대 후반부터 추구하기 시작한 적극적 방어전략에 기반한 비대칭적 형태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강화 노력이 최근 일정한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지역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함.
 - 2009년 이후 중국은 국제적 지위의 상승과 함께, 특히 영토 분쟁 문제 등에 있어 상당히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미국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음.
 - 이에 대응해 2010년 이후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공·해전투(AirSea Battle) 작전개념 개발, 지역 다자기구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참여, 환태평양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통한 경제통합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시켜 왔음.
 - 미국의 보다 본격적인 견제 강화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중국에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가져왔고, 중국 지도부는 2010년 말 정책 조정을 결정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
 -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도, 2011년 말부터 세계 전략상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재조정하고 아시아 우선 정책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사적·외교적 개입을 강화해 왔음.
 - 미국은 2010년 이후의 포괄적인 아시아 개입 강화 노력을 지속

미·중관계의
협력적 기조가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급부상,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보다 공세적인
외교행태는
미국의 견제를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최근 미·중관계에 있어
경쟁적 측면을
증대시켜 왔으며...

하면서, 2012년 초 ‘신전략지침’을 발표해 아시아 중심의 미국 군사력 배치 재균형(rebalancing)을 시행하기 시작함. 이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반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래전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려는 국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자제시키고,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균형자로서의 신뢰를 강화해 지역안정을 유지하려 함.

-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의 대응은 상당히 신중했지만,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분쟁 등에서 여전히 공세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계속해서 유발해 옴.

중국의
계속적인 부상은
동아시아
국제체제 내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겠지만,
향후 5년간 미국은
여전히 분명한
힘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며...

3. 미·중관계 전망

가.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¹⁾

- 중국의 계속적인 부상은 동아시아 국제체제 내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겠지만, 향후 5년간 미국은 여전히 분명한 힘의 우위를 유지할 것임.
-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과의 세력균형상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온 가장 큰 동력이 되어 왔음.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두 배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경제발전 수준과 기술력 등 질적인 측면에서 강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상대적인 고성장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세력균형을 변화시킬 것임.
-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것임.

1) 보다 상세한 양국 간 세력균형 분석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 바람. 최우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년 1월), pp.3~6; “미·중 군사력 균형,” 『2011년 정책연구과제 2』 (외교안보연구원, 2012년 2월).

- 중국은 미사일, 잠수함, 대위성 능력, 사이버공격 능력 등의 지역접근저지 능력의 증강을 통해 서서히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작전상의 위협을 증대시킬 것임.
- 미국은 상당기간 경제회복에 집중할 것이고, 정부부채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장기적으로도 군사비 지출에 대한 심각한 압박이 될 것임.
- 그러나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RMA를 통해 이룬 군사적 우위의 기반 위에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미래전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서태평양에서의 해·공군력의 점진적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임.

나. 미국의 대중전략

- 2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지도적 지위와 지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포용과 견제를 결합한 복합적 대중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임.
 -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위주의 정책을 추구할 경우 중국의 군사력 강화 노력을 더욱 자극해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지역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임.
 - 미국 지도부는 중국의 상대적으로 더 빠른 경제성장을 허용하더라도, 현재의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을 현상 유지 국가로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포용과 견제를 결합한 정책이라는 데 대한 강한 초당적 합의를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로 통합시키고 군비증강의 동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과 다양한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미국은 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아시아 우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
 -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전략에 기초한 비대칭적 군사력 강화는 이미 기존의 군사력 균형의 유지를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대응을 불가피하게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2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지도적 지위와 지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포용과 견제를 결합한 복합적 대중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실질적 조치가
동반되지 않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정책을 통해
신중하지만 확고하게
대전략상의
대단히 중요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가장 강력한 미래의
도전자가 존재하고
가장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아시아에서의
강한 개입에 대한
백악관·국무부·
국방부·의회에서의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해...

RMA와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고,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전략을 극복하기 위해 공·해전투 작전개념과 이에 필요한 전력의 개발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임.

- 미국은 또한 미래의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진출에 대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전략적 접근에 기초해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임.
- 미국은 계속해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지역다자기구와 지역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역질서 구축을 주도하려 노력할 것임.
- 실질적 조치가 동반되지 않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정책을 통해 신중하지만 확고하게 대전략상의 대단히 중요한 전환을 추진할 것임.
- 가장 강력한 미래의 도전자가 존재하고 가장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아시아에서의 강한 개입에 대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의회에서의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함.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오랜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서 벗어나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재균형 정책을 주도해온 톰 도닐론(Tom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임될 예정임.²⁾
 - 정치적 부담에서 상당 정도 벗어난 2기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정책에 대한 보다 강한 통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재정압박과 중동문제로 인해 재균형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가지 변수로 인해 정책 지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낮음.

2) Tom Donilon, "U.S.-China Relations: The U.S. Domestic Context," in *China's March on the 21st Century: A Report of the Aspen Strategy Group*, eds., Kurt Campbell and Willow Darsie (The Aspen Institute, 2007);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er Tom Donilo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November 15, 2012).

- 만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연방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에 실패한다면 10년에 걸쳐 5,00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국방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구하고 있는 국방정책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임.
- 하지만 정부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철학적,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 강화된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력과 대중적 압력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위기로 몰고 갈 자동 예산감축(sequestration)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 타협안이 마련될 경우,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 모두 지나친 국방비 삭감에 반대할 것임.
- 아시아 우선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개입임. 하지만 과거 실패의 교훈뿐 아니라 현재 시리아, 이란 등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보다 신속한 철군 전략 그리고 아시아지역 개입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볼 때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대규모 군사력, 특히 지상군 사용 가능성은 낮음.
- 오바마 대통령, 도널론 국가안보보좌관, 존 케리(John Kerry) 국무부 장관 내정자,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모두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
- 미국의 강한 아시아 개입 정책이 중국의 반발을 유발해 미·중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상당히 미묘한 정책조절을 해 왔음.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우선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인식을 지나치게 강화해 본격적인 군사력 경쟁을 촉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군사력 강화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할 것임.
-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주로 중국에 근접하지 않은 기지에 대한 순환주둔과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력의 재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우선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인식을 지나치게 강화해 본격적인 군사력 경쟁을 촉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군사력 강화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할 것이며...

-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기술적 우위를 이용한 RMA를 통해 전반적으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강조할 것임.
- 또한, 재균형 정책의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경제적인 포괄적 접근법을 강조할 것임.

다. 중국의 대미전략

시진핑 정부는
국력상승에 따른
증대되는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격적 정책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대외환경과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중한 대전략을
보다 강하게
추구할 것이며...

- 시진핑 정부는 국력상승에 따른 증대되는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격적 정책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대외환경과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중한 대전략을 보다 강하게 추구할 것임.
- 중국 신지도부는 미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한편,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견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안정이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국제환경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이러한 전략을 추구함.
 - 중국 지도부는 2010년 말의 정책논쟁에서 중국의 국력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의 힘의 우위가 확고하다는 평가에 기초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보다는 협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³⁾
 - 시진핑 지도하에 작성된 18차 당대회 공작보고도 소강사회를 달성할 2020년까지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임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 그리고 장기적인 건설적 관계 구축을 강조함.⁴⁾

3) Dai Bingguo, "China is Committed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Remarks at the Symposium on China's Peaceful Development White Paper, September 15, 2011).

4) "Full Text of Hu Jintao's Report at the 18th Party Congress," *Xinhua*, November 17, 2012. 장지준(張志軍) 외교부 부부장은 란팅포럼에서 당대회 공작보고를 설명하며 평화적 발전의 노선과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 노력이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Zhang Zhijun, "Stay Committed to Peaceful Development and Win-Win Cooperation" (Speech at the 8th Lanting Forum, December 28, 2012).

- 이러한 구조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진핑 정부는 2009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견제 강화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악화가 가져온 외교적 손실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전략적 재조정을 통해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자제할 것임.
 - 중국 정부는 중국외교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시진핑은 최근 외국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오늘날 세계는 조용하지 않지만, 이 시대의 주제는 여전히 평화와 발전”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국으로서 “오만하면 잃을 것이고 겸손하면 얻을 것이다.”라고 경고함.⁵⁾
 -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초기에 정치적 이유로 민족주의 감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영토분쟁에 있어 상당히 공세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권력공고화와 함께 최근 중국의 외교적 실패를 야기한 주원인 중 하나이고 당장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해양 영토분쟁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줄이고, 확고하지만 동시에 보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형태의 외교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국의 신지도부는 심각한 내부적 도전들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략적 환경의 유지에 집중할 것임.
-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표출되는 대중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는 영토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도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임.

구조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진핑 정부는
2009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견제 강화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악화가 가져온
외교적 손실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전략적 재조정을 통해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자제할 것이며...

5) “China’s Development Not Detrimental to Others: Xi,” *Xinhua*, December 5, 2012. 우젠민(吳建民)도 인민일보에서 공세적 외교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면서 “도광양晦(韜光養晦)는 오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신중한 것을 의미한다. 사람처럼 국가도 지배하려 들고 사방에 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함. Wu Jianmin, “Should China Continue to Keep a Low-profile Attitude?” *People’s Daily*, December 13, 2012.

전략적 재조정을 통해 미국의 대중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과 군사기술 현대화를 중심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장기적 세력균형 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 후진타오(胡錦濤)와 비교할 때,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다수의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강한 지도력을 보유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보다 집중화해 전략적 재조정을 보다 강하고 일관성 있게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시진핑 자신은 이전의 중국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족 주의적 성향을 갖겠지만,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는 한 민족 주의적 감정보다는 전략적 환경과 국가 이익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기반한 정책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전략적 재조정을 통해 미국의 대중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과 군사기술 현대화를 중심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장기적 세력균형 전략을 추구할 것임.
 -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국방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제한된 자원을 가진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미국의 군사적 재균형 정책에 대응해 급격한 국방예산 증대를 통해 군비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음.
 -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와 강력한 지역동맹 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사일, 잠수함, 대위성 무기, 사이버전쟁 능력 등 비대칭전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이와 함께 군사기술 발전, 통합작전 능력 향상 그리고 해상전력 등 군사력 투사 잠재력의 증강을 위한 노력을 증대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할 것임.
 - 또한, 경제적 의존관계 등을 이용해 역내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임.
-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역시 주권과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비타협적일 것임.

라. 미·중관계와 지역안정

-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는 자연히 미·중 간의

경쟁과 상호견제를 강화시킬 것임. 하지만 점증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해와 다양한 국제 이슈들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미·중 간 협력의 기초를 유지시킬 것임.

- 미·중 경쟁 증대, 역내 국가 간의 위협인식 증대와 군사력 경쟁,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등 지역 불안정 요인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체제는 여전히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의 균형자 역할에 기초해 향후 5년간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임.
 -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보다 강한 개입정책이 미·중 간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적절한 속도와 수준을 유지하는 미국의 지역 역할 강화는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국 부상에 따른 일본 등 동맹국들 균비증강의 동기를 일정한 수준에서 제어하면서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임.
 - 미국은 영토분쟁에 있어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억지하고 관련국들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계속할 것임.
- 장기적으로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실질적 경쟁자가 될 것임. 중국은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시점에서 축적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지역접근저지를 위한 비대칭전략을 넘어 다수의 항공모함 전개 등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해상과 공중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위협할 것임. 이러한 중국의 국력 강화는 미국의 동아시아 세력균형 유지에 대한 사활적 이해와 충돌하면서 높은 수준의 안보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 총량에서 추월한 이후에도 미국은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질적 우위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역외균형자 역할을 계속할 것임. 또한, 대부분의 역내 주요국들은 대륙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임. 따라서 동아시아가 다극체제로 이행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세력균형은 유지될 것임. 높은 수준의 안보경쟁에도 불구하고, 세력균형은 상호 핵억지, 경제적 상호의존 등과 함께 미·중 간의 갈등을 자제시키고 지역안정을 유지시킬 것임.

점증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해와
다양한
국제이슈들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미·중 간
협력의 기초를
유지시킬 것이며...

4. 한국의 전략적 위치

-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분단된 한국에게 강대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간의 세력관계 변화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와 미·중 간의 경쟁 강화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점차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군사협력과 일본 등과의 다자안보협력 강화 요구를 증대시킬 것임. 중국은 대중견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안보협력에 반대하면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재조정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아직 북한을 미국에 대한 필수적인 완충지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미·중 경쟁과 남북갈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분단을 고착화하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점증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미국 우위하의 미·중관계의 협력 기조 유지는 한국이 양국과의 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제공할 것임.
 -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는 점차 지역안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임. 따라서 한국에 있어 대북억지와 지역안정을 위해 역외균형자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임.
 - 동시에 한국은 제1의 무역상대국이고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략적 이익을 갖고 있음. 또한,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국인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긴요함.
- 또한, 점증하는 미·중 경쟁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견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임.

점증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미국 우위하의
미·중관계의
협력 기조 유지는
한국이 양국과의
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5.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

-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함.
 -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불안정한 이행과정을 거치고 있는 북한을 억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강대국화가 동반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헤징(hedging)이 될 것임.
 - 한국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 중국과 최선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미·중 간 안보경쟁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불식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이를 통해 통일 이후에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일 이유가 없고 한·미 동맹이 유지되더라도 안보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함.
 - 하지만 세력관계의 변화 속도에 대한 과대한 평가에 기반해 미국과의 동맹을 재조정하거나 균형론 등에 따라 선부르게 전략을 변경하는 것은 동맹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option)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임. 중립화론 역시 동맹의 상실을 의미하고, 중국의 강대국화를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한편 한국은 장기적으로 유사시 증원과 보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의 발전과 미국의 대응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
- 미국과의 안보협력의 신뢰성을 유지·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강화된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이해와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함.
 - 미국 지도부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특수한 전략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고한 전략적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함.
 - 현재 한·중 간의 안보협력 수준을 고려하고 과도한 기대의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지만, 세력관계의 변화 속도에 대한 과대한 평가에 기반해 미국과의 동맹을 재조정하거나 균형론 등에 따라 선부르게 전략을 변경하는 것은 동맹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option)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분간 현재의 차관급 전략 대화를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정한 시점에서 장관급 전략경제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를 강화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정말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지도부 수준의 채널들을 확보해야 함.

- 일본과의 정보·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의 상호이해를 증진해 미래의 협력기반을 닦아야 하지만, 대중 안보협력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그리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발을 통해 한·중 간의 상호 의구심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어해야 함.

○ 미·중 경쟁과 남북갈등의 상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미·중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바, 북한문제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 전문가들 간의 보다 다양한 전략대화를 통해 한·중, 한·미·중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입장과 이익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 특히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억지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전략대화 통로들을 확충해야 함.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상 방안 구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고 미국,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설적 지역협력 방안의 제시를 통해 세력관계의 변화가 자연히 동반할 미·중 갈등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지역 협력을 위한 다자기구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 다자기구를 통한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다자전략대화 등을 통해 미·중 경쟁을 완화하고, 한·중 간 전략적 상호신뢰를 발전시켜야 함.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실현을 통해

미·중 경쟁과
남북갈등의
상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미·중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상 방안
구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고
미국,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괄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추구해 공동번영과 지역안정을 추구해야 함.

2012. 12. 12

토론: 교수 이지용
 객원교수 윤근노
 가톨릭대 교수 김재철
 편집: 선임연구원 유지선

한·중 FTA
 실현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괄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추구해
 공동번영과
 지역안정을
 추구해야...